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어느 누가 아프지 많으랴

바른 성경 찾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

11월 4일 나성청운교회

바른 성경을 찾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11월 4일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성청운교회(담임목사 이명수, 4465 Melrose Ave., LA, CA 90029)에서 열린다. 주 강사로 김영재 목사 나선다.

김영재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에게 주신 무오한 계시로서 구원과 의로운 생활 및 영생을 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특히 성령에 감동된 여러 저자들이 쓴 책을 모은 것이나, 사실은 한 책이며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과 생활 및 증거에 대하여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지 성경의 판단이 최종적이므로 인간은 이를 존중하고 순종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김영재 목사는 성서교회 담임목사와 한얼산 기도원에서 강사로 사역했다 현재 그레이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문의: (323) 708-3546

미 교회 절반 "출석 교인 65명 이하"

미 전역에 있는 약 35만 개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종교연구소의 FACT(Faith Communities Today)는 코로나19 폐쇄 이전 15,278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65명 이하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0년에 비해 137명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FACT는 설명했다. 하버드종교연구소의 FACT 조사는 2000년부터 5년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다. 개신교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감소(12.5%)를 겪었다. 2020년 기준 예배 출석 인원의 중앙값은 50명였다. 복음주의 교회는 깊은 기간 더 느린 비율(5.4%)로 줄었다. 예배 출석 평균 참석자 수는 65명이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9% 줄었다. 같은 기간 단체는 비기독교인 회중(무슬림, 바하이교, 유대교)이었다.

조사 결과 미국 남부에는 전체 인구의 38%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반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내 삶의 화두는 온통 자비심이다. 자비로 못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수행과 깨달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수행과 깨달음은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일까? 그것은 한낱 사치스런 관념과 수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비는 당장의 마음이고 당장의 실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늘 생동하는 평등의 눈길이고, 구제의 손길이고, 연민의 가슴이다.

내게 처음 자비심이 무엇인가 절절하게 온몸으로 가르쳐 준 분은 우리 할머니이다.

내가 유년기를 보낸 가난한 시골의 우리 마을은, 6·70년대 가난한 시골 마을이 그렇듯이, 하루 걸러 남루한 사람들이 어김없이 구걸하러 왔다. 가난한 살림에도 우리 집은 나름 적선의 원칙이 있었는데, 탁발 온 스님에게는 쌀 한 그릇, 걸인에게는 보리쌀 한 접시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걸인에게 적선하면서도 꼭 한마디씩 위로와 축원을 해주셨다.

"아이구! 어쨌든지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몸 간수 잘 하시우!"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는 수줍은 몸짓과 더불어 눈시울이 붉어졌던 걸인들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나의 할머니는 혹여 걸인들이 끼니를 채우지 못한 것을 알면 없는 반찬과 보리쌀 많이 섞인 밥일망정 밥상을 정성스레 뒤아 차려주셨다. 하지만 어린 나는 걸인이 먹는 밥상이 늘 마음에 걸렸다. 아니, 저들이



먹는 밥그릇과 수저로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할머니! 보리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거지들에게 밥은 안 차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애야, 먹는 입은 다 똑같은 거란다."

나는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것 같다. '차이가 있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절대적 빈곤에 내몰린 걸인에게도 신체적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도, 예의와 인정을 베풀었던 할머니에게서 나는 별다른 이론적 학습 없이 겸손과 평등과 자비를 저절로 체득한 것 같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할머니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신 분이였다.

"모든 생명은 재직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나에게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는 법구경의 간명한 말씀에는 평화와 평등, 자유를 염원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배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쟁을 반대했고, 계급의 차별을 원천적

으로 부정했고,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중생과 동행한 당신의 삶에 굽직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부처님은 풍을 푸는 직업을 가진 수드라 신분이니 나에게 "너는 세상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라고 자비의 언행을, 계급이 높다고 교만한 바라문에게

"악행을 하면 누구나 나쁜 과보를 받고 보시하고 선행하면 누구나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나는 출생을 묻지 않는다. 다만 행위를 묻는다." 라고 하며 알랑한 개념에 물든 나에게 등을 후려치는 죽비소리의 말씀을 내리셨다. 일상의 통념적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새로운 방식의 자비 복권을 제시해주셨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심은 어느 개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넘어 시대와 역사의 광장에서 정의와 공정의 외침으로 다가온다.

왜 자비심인가? 그것은 생명의 질서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비심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씨앗이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자비심을 나눌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결국 자비심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

자비심! 그것은 더불어 평등하고 평화롭고 환희롭게 살아가는 깊은 지혜이며 실천이다.

오로지 이 길뿐이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아프지 않겠는가?

-법인 스님-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문의전화 (562) 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